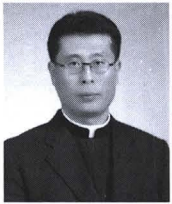


강론 ...

파견



정성만 신부
(서곡성당 주임)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일찍이 당신의 구원활동에 직접 참여 시키신 열두 제자의 '복음 선포 사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 하셨다.”(마르코 6,7)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며,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가볍고 활기찬 몸과 마음가짐으로 오직 복음선포에만 헌신하라는 것이다.

열두 제자들의 경우에서도 예언자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말하자면 그들의 사도적 사명 역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탁하는 신뢰심과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다. 주어진 모든 삶과 미래를 온통 하느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요구된다. 복음 선포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다. 기도와 활동은 복음 선포를 위한 두가지 필수조건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자신들의 전교활동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선포와

구원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복음선포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파견되는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복음 선포 활동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에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반영시키고 또한 그분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 그들도 모두 하느님께 돌아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을 완수할 차례이다. 우리는 세례 때 이미 이와 같은 약속을 하였으며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것이다.

숲머리 생각

흙을 담은 사람들
그리고
그 순종의 미소.



아! 그속에 살아 계시는 주님!

문정섭
(베드로)

박해의 조짐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오. 우리는 아시리아 황제 에살하돈에게 이리로 끌려 온 날 부터 당신들 못지 않게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아 제사를 올려왔소.” (에즈 4,2)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자들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더 없는 행운이었다. 물론 하느님의 축복이었음이 틀림없다. 즈르빠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공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회한과 감격의



기를 꺾고 겁을 주며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한편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그들의 보복은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사

눈물을 흘렸다. 버림받았던 백성들이 다시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하느님을 섬기는 믿음의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롯이 한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청을 해온다.

마리아인들이 누구인가. 북왕국이 망하고 그 자리에 이주해 온 북방민족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신을 성전에서 함께 섬겨온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에게 하느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있을 리 없다.

“우리도 성전을 함께 짓게 해 주시오. 우리도 당신들 못지 않게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아 제사를 올려왔소.” 얼핏 호감이 가고 반가운 청탁이 아닐 수 없다. 성전 공사에 힘을 보태고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표시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귀향자들의 대답은 달랐다. “우리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당신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성전은 우리가 짓겠소.” 단호히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는 모처럼의 호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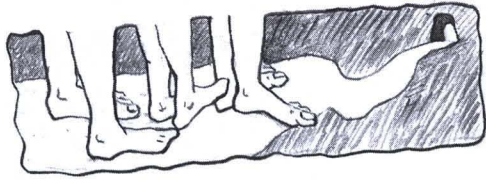
이방신을 섬겼기에 버림을 받고 나라의 멸망을 보았던 유대인들이다. 유배의 쓰라림을 안고 돌아온 지금에 와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없다. 사마리아인들의 박해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상숭배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박해는 피하고 인내하면 되지만 하느님을 배반하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이스라엘이 시련을 겪었어도 이때처럼 마음이 깨끗한 때는 없었다. 사람은 무릇 이렇게 살아야 하리라.

사마리아인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들은 유대 백성의

그림 : 박종구 (바드리아오)

하느님의 길, 사람의 길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기도를 바치기 시작한 지 2주년이 된다. 늘 터프하고 아슬아슬하기 만한 사춘기 사내아이 둘을 앉혀놓고 매일 기도를 바치는 일이 처



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때로는 기도 중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정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고 기도를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수 없이 일었다. 그러나 하느님이 성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서 하루 중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하느님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가정이란, 구성원들의 한쪽 발을 묶은 채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힘껏 달려가야 하는 철인 몇 종 경기라고나 할까. 한 사람만 앞서가서도 안 되며 누군가가 뒤쳐져서도 안 된다. 온 가족이 호흡을 맞춰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 좀 늦게 달리는 사람을 위해 속도를 줄여 주어야 하고 좀 더 앞서가고 싶은 사람은 자제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새로운 경기가 이어진다.

가다가 예기치 않은 장애물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

선물의 가치는 고뇌에 바쳐진 시간만큼 복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함께 해주셨던 그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은 참으로 오묘한 신의 섭리이다. 하느님께서 신비로운 보물을 가장 많이 감춰두신 곳, 가정 안에서 얻어지는 건강한 사랑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다. 하느님께서는 애써 수고롭게 그 보물을 찾아내는 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주신다.

하느님의 길을 바라보며,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간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나머지는 하느님의 몫이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가올 모든 것을 그 분께 맡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의 길.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끝나는 어디쯤에선가 하느님의 길과 만나게 되리라. 그 경계에는 인내와 사랑의 꽃들이 향기롭게 피어있을 것이다.

김혜선(아네스)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입당송 시편 17(16),15
제1독서 아모 7,12-15
회답송 시편 85(84), 97-100과 101,1213-14 (© 8)

◎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노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시도다. 정녕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르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제2독서 에페 1,3-14(또는 1,3-10)

복음 환호송 에페 1,7-18 참조

◎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찾게 하여 주소서. 알렐루야. ◎

복음 마르 6,7-13

영성체송 시편 84(83),4-5



본당 주요소식 미리보기

◆마동 성당

제 2회 본당 가족캠프 : 7월 29일(토)~30일(주일)

◆우림 성당

영화상영 : 7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맨발의 기봉이'

◆어양동 성당

영화상영 : 19일(수) 오후 7시 30분
'플라이스프레스'

◆신태인 성당

상본 전사회 : 8월 15일(성모승천)
1965년 이전 상본 및 성화, 교리서

◆둔율동 성당

가정을 위한 미사 : 20일(목) 오후 7시 30분

◆서곡 성당

가족캠프 : 주제-서로의 빛이 되어
일시 : 7월 22일(토)~23일(주일)
장소 : 구이 청정 인성수련원

가까운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신앙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모습 안에서 신앙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마지막 날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미사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송향순 기자

● 호성동 성당 주임 신부 영명·수녀원 후보 축일 잔치

호성동 성당(주임=현유복 신부)은 지난 7월 9일(주일) 본당 신부 영명축일과 본당 수녀원 후보 축일을 맞이하여 꽃다발 증정식, 신자들의 영적, 물질 예물 증정, 제대회 선물 증정식, 떡케이크 절단식에 이어 초등부 어린이들의 축하와 축하 편지 낭송이 있었다.

이날 본당 신부는 영명 축일에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며, 신자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답례했다. 신자들은 신부의 영육간 건강을 빌며, 전신자 국수 나눔 잔치 내내 화기애애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최경호 기자

● 전주카리타스봉사단 긴급 비상소집 훈련



지난 5월에 창단한 전주카리타스봉사단이 장마철의 재해·재난을 대비하는 긴급비상소집훈련을 7월 7일(금)에 가졌다.

7일 전주공설운동장에서 모인 단원 40여명은 준비된 버스를 이용, 사회복지시설 '소화 진달네집'으로 이동하여 상황 발생시 단계별 실천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장마를 대비한 시설 주변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을 마친 단원들은 전주 완산소방서를 방문, '인명구조교육'을 받는 것을 끝으로 긴급비상소집훈련을 마쳤다. |홍보국 정리

●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2차 피정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2차 피정이 사목국장 김광태(야고보) 신부의 지도로 지난 7월 3일(월)부터 7월 5일(수)까지 천호 피정의 집에서 실시되었다.

33명의 참석자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내용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내용의 강의와 묵상, 성체 현시, 폐제 묵상 그리고 고백성사를 통해 모처럼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느님 사랑 안에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졌다.

피정 강의 중에 김 신부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초대 교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느님과 가장

SEDEN(인후접)

부분도색 / 덴트시스템 / 파워핀금
전문광택 / 코팅 / 범퍼재생
대표 : 강준철(바르나바) 전현진(올리안나)
위치 : 농고에서 안골중간 사거리
문의 : 247-2332, 018-415-3205

- 행복 한 발 걸음 -

슈즈뱅크

신발의 모던컷 / 품질·가격·서비스 대만족
발길마다 행복으로
삼천하이츠 정문앞 홀마트 옆 / 221-2003
김병각(대건 안드레아) 김현나(베로니카)

가톨릭 학생들을 위한 뉴질랜드 현지학교 체험

가격 : 275만원(항공권 별도)
기간 : 7월 22일~8월 19일까지
대상 : 초,중,고생
주최 : EDUCARE, 더니든 north교구
문의 : 은 이석(이사악) 011-9476-2421
www.educare-si.net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수산

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점(내)
227-7877 / 011-652-8045

전북 방사선과.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암검진)
CT / 초음파 / 유방 / 갑상선 검사
효자동 국민은행 3층(228-6060)
원장 : 임여섭(루치아), 송하숙(야고보)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초혼·재혼〉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전주교구 젊은이 성령 묵상회 개최



교구 청년 성령 봉사회(=다니엘 선교단, 지도 이명재신부)는 지난 7일(금)부터 사흘간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교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제 6차 젊은이 성령 묵상회를 열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신명 31,23)를 주제로 열린 묵상회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활기

차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기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찬양, 강의, 그룹 나눔, 폐제기도, 미사와 안수예절등으로 진행된 성령 묵상회를 통하여 신앙인의 정체성을 조망해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이 성령 묵상회는 작년까지 겨울에만 실시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두번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외부의 초청강사 없이 주최측인 다니엘 선교단만이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 진행하여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이명재 지도신부는 말했다.

다니엘 선교단은 전주 중앙 성당에서 교구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9시까지 기도모임을 열고있다.

|신현숙, 김영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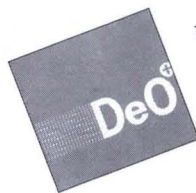
▶ 문화의 향기 ◀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강길웅 / 바오로 딸 / 4,000원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을 뜨지 못하면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느끼지 못한다. 편견을 버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례를 들어 일깨움을 준다.

De02 / 천주교 의정부교구



데오의 이번 2집 앨범에는 본당 청소년, 청년 미사나 행사 때 함께 부르기에 좋은 곡을 담아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전하고 있다.

구입 및 공연 문의

<http://club.cyworld.com/deo2>
sopia0323@naver.com
(011-899-0323 이재경)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약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리피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응급전화 : 016-335-8175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젊은이들을 위한 수도생활 체험학교
일시 : 8월 13일(주일)~15일(화)
성배네덕도회
대상 : 고교생이상 만 31세이하의 미혼 남·녀
문의 : 019-9353-2323
(선착순 50명)

가르멜 수도회 성소 피정
대상 : 고3이상 33세 미만 청년
일시 : 8월 14일(월)~8월 17일(목)
장소 : 마산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집
신청 : 010-6624-2625 / 032-542-2625
이나시오 수사
가르멜 성소 카페 : cafe.daum.net /
www.carmel(in-ocd@hanmail.net)

2007(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수시1학기 : 7월 13일(목)~22일(토)
모집학과 안내 : (<http://www.osangji.ac.kr>)
문의 : 054-851-3021~3 / fax : 054-851-3009

2006년 여름
북유럽 10박 11일 / 동유럽 7박 8일
7월 30일 출발합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전 일 관 광
조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

한국 외방 선교회
일시 : 7월 23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문의 : 010-6269-1711, 02-3673-2525
비고 : 신교사제를 희망하는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고등학생, 대학생, 만 30세 이하 미혼남자

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양상담
문의 : 032-875-3240
www.hschild.or.kr

제6회 하기 성음악 연주회(성음악동호회)
일시 : 8월 18일(금)~20일(주일) 2박 3일
장사 : 이철신부, 구명림수녀, 박광하, 이철수 교수
참가비 : 18만원(3만원 신청금)
장소 : 아론의 집(의왕시 나자로 마을내)
내용 : 지휘법, 발성법, 연습기술, 오르간 반주법
문의 : 02-504-0079, 011-880-3797
신청 : 340-17-000471 농협(가톨릭성음악)



교구장 일정

- Peterboroug 한인성당 방문 피정지도
7월 16일(주일)~19일(수)
- 미국 헤리스버그 한인성당 피정지도
7월 20일(목)~25일(화)

미사 · 행사 · 모임

- 가르멜 재속회
7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용머리
- 고3, 대학생, 일반 예신 모임
7월 23일(주일) 오전 10시 성소국
- 동전주 하나회 미사
7월 23일(주일) 오후 2시 우아동
- 2006년 전주교구 가족캠프
8월 4일(금) 오후 7시~6일(주일) 오후 6시
주제 :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족
대상 : 초(4~6학년), 중 · 고 자녀를 둔 가정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 : 4인가족 기준 280,000원
신청마감 : 7월 8일(토)
접수 및 문의 : 285-0041(가정 사목)
입금 : 505-13-0312074 전북은행
예금주 : 천주교 유지재단

교육 · 피정 · 연수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3차
7월 18일(화) 오전 10시
주제 :
1일-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2일- 부모 · 자녀관계에서의 청소년
3일- 청소년과의 대화의 다리
강사 : 박윤자 / 장소 : 센터 3층
참가비 : 30,000원 / 마감 : 6월 20일
문의 : 285-0041(가정사목국)
- M.E 110차 주말
7월 21일(금)~23일(주일) 천호
- 천동연 여름캠프
7월 21일(금)~23일(주일) 해월리
- 가톨릭신학원 성서연수와 2학기 모집안내
과정 : 신약 1편
(신약입문, 공관, 사도 바오로서간)
장소 : 전주본원 및 군산, 익산, 남원(신약2편)
수강료 : 7만원
모집기간 : 9월 7일까지
문의 : 행정실 255-2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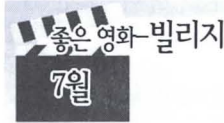
- 2006년 에큐메니칼 포럼
7월 22일(토) 오후 7시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주제 : 보속, 사죄의 선인 '교회일치를 통한
공동체의 치유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접근'
- 한국 세실리아 성음악협회
2006년 성음악 연주회
8월 16일(수)~19일(토)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및 성 분도 은혜의 집
마감 : 7월 24일
문의 : 02-3273-8978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후원사업
주간보호 어르신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 주세요
후원계좌번호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전북은행 541-13-0311676
문의 : 232-0334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
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홍보국)
- 1년 정기 구독료 : 10,000원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새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내역(7/2~7/8)
조정래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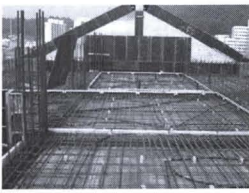
일 시 : 7월 19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06 분
관람비 : 천원

평화롭고 목가적인 마을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생
명체와 그에 반응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흥미와
재미를 겸한 전드라마이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교훈을 담
고 있는 영화.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명	모임일시	모임장소	문의
사랑의 씨앗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3-281-0441
성바오로수도회	첫째 (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딸 서원	063-252-3398
울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홍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콘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북홍공소	063-653-8004
살트리 성바오로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침인동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익산)	둘째 주일 오후 2시	익산 성모병원	010-7250-7049
아씨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산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를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신A.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	셋째 주일 오후 2시	아중성당수녀원	063-244-6762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울 길음동 본원	02-919-2754
까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성소국	011-9852-9817
관상 · 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성가정 카푸친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4시	동산동 아미고의 집	063-214-4041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7월 8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6,290,567	41.94%
사제단	1,000,000	930,228	93.02%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491,770	32.78%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7,934,373	44.08%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옥봉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나바위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산, 인후동, 황동, 서학동, 장계, 여산, 무주, 신태인
-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중앙, 오룡동, 월명동, 용안, 신평, 복자, 대야, 나운 2동,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우전, 조촌동, 덕진

▶ 장애인복지협의회 ◀



천주교 전주교구 장애인복지협의회는 4개 지역의 하나회와 시각, 청각 선교회를 포함한 단체 협의회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적 정신에 따라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각 지회별로 월례회를 갖고 병자방문, 장학금 전달 등의 활동 외에도 연중행사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전채페정, 야외미사 및 성지순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과 자원봉사자들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에 시달리지만, 많은 장애인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그들만의 우정을 나누며 비장애인들과 하나되는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하나회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희망과 열

정의 뜻을 지닌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각 본당의 장애인 및 가족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회 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각 본당 신부님 및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 문의사항

- 하나회 홈페이지 <http://www.hanahoe.org>
- 천주교 전주교구 장애인 복지협의회 회장
임한복(마태오) 011-672-6509
- 지도신부 양석현 세례자요한 011-681-0610

첫째주	군산 하나회 및 농아선교회 나운동 성당 오후 2시	김연순(011-9628-6976)
둘째주	서전주 하나회 및 농아선교회 삼천동 성당 오후 2시	김하곤(011-658-0177)
셋째주	익산 하나회 부송동 성당 오후 2시	황원재(011-658-0177)
넷째주	동전주 하나회 및 맹인선교회 우아동 성당 오후 2시	채병국(019-650-6695)